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3실무그룹 보고서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안영환

IPCC 국내대응협의회 제3실무그룹 위원장,
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에너지학과
yh.ahn@sm.ac.kr

2010년대 중반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잠깐 주춤한 적이 있었지만, 2010~2019년 전세계 온실가스 연평균 배출량은 역대 최대이다. 2015년 파리협정 타결, 2018년 1.5도 특별보고서 발간, 2020년까지 주요국들의 탄소중립 목표 선언 이후 올해 발간된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3실무그룹 보고서는 아직 늦지 않았지만, 즉각적으로 비상한 행동이 취해지지 않으면 1.5도 또는 2도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늦어도 2025년 이전에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에 도달하고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약 43% 감소한 후 2070년 온실가스 넷제로에 도달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부문별도 다양한 수단들을 보여주고, 기존 보고서에 비해 수요 관리를 통한 감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감축비용도 높지 않음을 역설하고 있다.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2015년에 설정한 후 발표된 보고서라서 탄소중립 전환 과정의 형평성 및 공정성에 대한 검토도 과거보다 비중이 증가하였다. 거버넌스와 금융의 역할도 이전보다 한층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의 내용과 우리의 주위에 여전히 존재하는 회의론과는 차이(gap)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차이를 짚어보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